

<새날 기금>과 미래 여성 지도력

박영숙(본재단 이사장)

싱그럽고 가정의 달인 5월 한달 31일동안 100명의 선두주자로 시작된 2004년도 기부 릴레이에 3100명이 참가하여 <새날 기금>이 마련된다. 이 기금은 여성들이 이끌어가는 밝고 깨끗한 살맛나는 세상,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량이 되는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지도력을 육성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얼마전까지 여성의 사회진출확대가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였던 시기를 거쳐 최근 몇 년간에는 지금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었던 다양한 분야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르는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었는가하면 지난 4.15 총선에서는 역대 최다수인 39명의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문호는 앞으로 활짝 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추세는 인구의 반인 여성들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한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서 아직 써보지 않은 여성들의 잠재력 발휘를 요구하고 있는데서 그동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비권위적이고 획일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공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진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유리천장 뚫기’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열려 있으나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 기회가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지는 여성인재들이 사회 구석 구석에 다수 있다. 우리 주변에 약간의 사회적인 뒷받침만 있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성인재들이 많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재단이 마련하는 것이 <새날 기금>조성이다.

재단에서는 벌써부터 현장 활동가들의 전문성 연마를 위한 재취학의 길을 열어주거나, 입학은 되었으나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번에 조성되는 새날 기금은 장학사업을 보다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

의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국제적 활동 참여 또는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활동등을 지원하게 된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준비된 여성지도자들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제기구 진출이나 국제교류 또는 남북화해 활동등을 역량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필요한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새날기금이 여성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날기금 모금은 이번 '100인 기부 릴레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그 바톤은 이어질 것이다. 내가 쾌척하는 작은 성금이 지금까지 잠재력으로 여겨지는 숨어있는 여성들에게 마음껏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 줄 수 있가면 큰 보람이 아니겠는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모두가 실시일반으로 뜻을 함께 하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다.